



#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9, 10)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긴 편지서입니다.

현존하는 두 편지서는 불과 몇 주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편지서에는 교인들 간의 불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서의 기별들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복음사역으로 부르심

고린도로 향한 선교여행

고린도 시

고린도 주민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서



# 바울을 복음사역으로 부르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 1:1)

예수님이 선택하신 열 두 제자 외에도, 맛디아(행 1:26), 바나바(행 14:4), 야고보와 바울(고전 15:7-9)과 같은 다른 사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지명되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심 (갈. 1:1)

언제 선택되었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갈. 1:15)

언제 사역으로 부르심의 받았나?

다마시커스로 가는 길에서 (행 22:6-7)

누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

이방사람들 (갈. 2:9)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말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고전 2:2).

# 고린도로 향한 선교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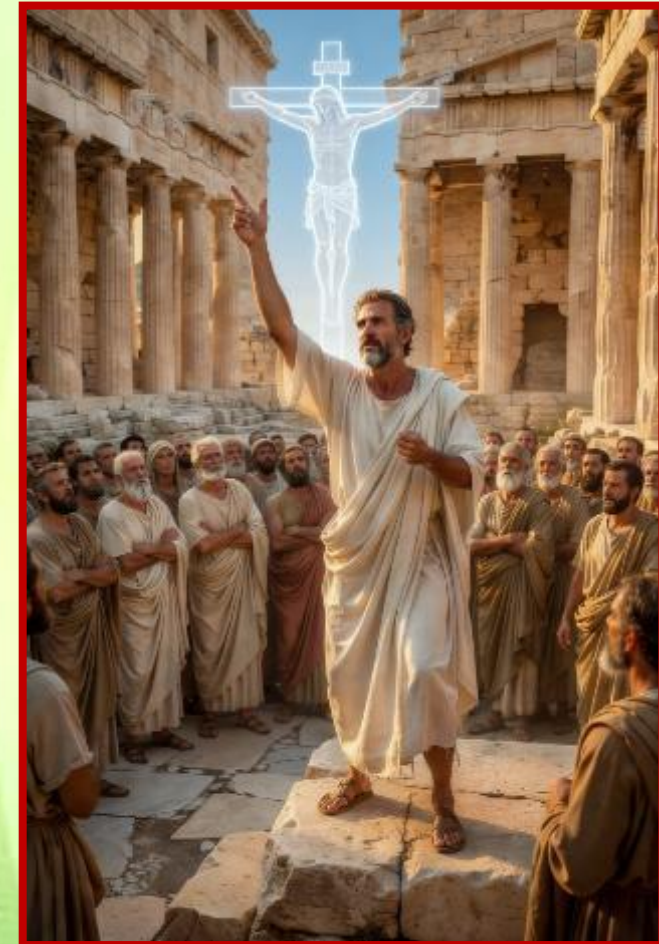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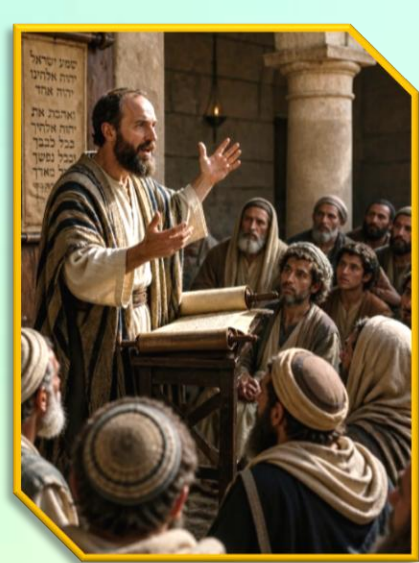
“이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행 18:1)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일 때 성령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행 16:6-10). 그는 이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행 16:12, 38-39), 데살로니가(행 17:1, 5, 9-10), 그리고 베뢰아(행 17:13-14)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테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시장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행 17:16-21). 수려한 단어들을 사용해 설득력 있는 연설로 호소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행 17:34).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으며,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행 18:1-3)

바울은 늘 그랬듯이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행 18:4-8). 아테네에서 '절망적인' 전도의 결과를 경험한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고전 2:2).



# 고린도 시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과 주님이 있다고 하지만” (고전 8:5)

기원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고린도에 율리우스 가이사가 기원전 46년에 퇴역 군인들과 자유시민들을 보내 식민도시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44년에 이르러 고린도시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바울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레카이온과 사로니코스만의 켄크레아라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 항구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돈과 물자가 풍부했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로 아테네에서만큼 벌이가 나아졌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었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 교회 안에 침투한 풍습들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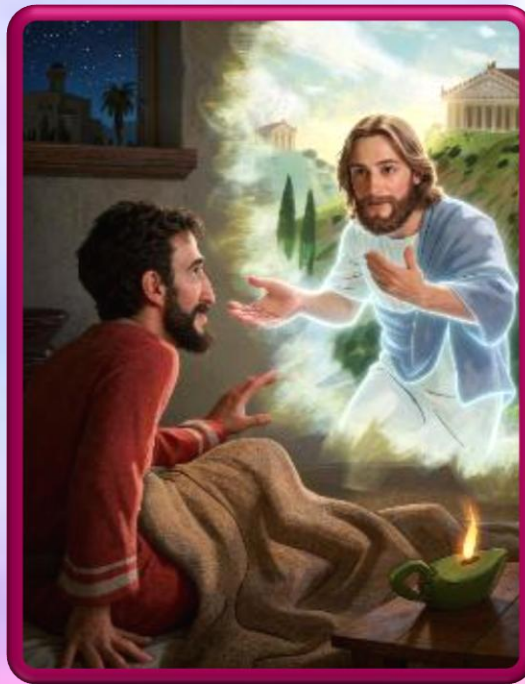
레카이온  
(Lechaëum)

고린도  
(Corinth)

켄크레아  
(Cenchreae)

# 고린도 주민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행 18:9)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기별을 거절하자, 그는 유대 회당을 떠나 그 주변의 집을 빌려 거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행 18:4-7).

“이방인들의 타락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한 바울은 심한 영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주민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적, 250).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기별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다는 확신을 주셨고 멈추지 말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행 18:9-10).



이 환상을 보고 용기를 낸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행 18:11).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행 18:12-13).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행 18:18).



#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서

“나는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전 1:11)

## 고린도 전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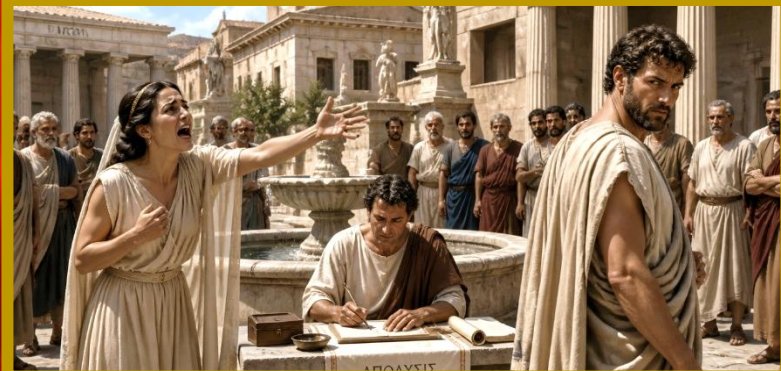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파벌, 음행, 싸움, 그리고 매춘 문제에 대해 그들을 권면합니다.

## 고린도 전서 7-16

또 글로에의 가족은 교인들이 보낸 여러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바울에게 전해주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결혼, 이혼, 독신, 우상에게 바친 음식, 예배의 태도, 영적 선물의 사용, 그리고 부활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 고린도 후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신은 두 번째 것이지만, 바울은 이보다 더 많은 서신들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마도 현존하는 두 서신보다 앞서서, 혹은 그 두 서신 사이에 쓴 편지서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칭찬하면서도, 주변 문화의 영향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면합니다.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목격하는 죄악과 불의, 그리고 타락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악한 도시 고린도에서 일하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모든 일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행 18:9, 10)... 폭력과 범죄로 가득 찬 도시라 할지라도, 참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수천 명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